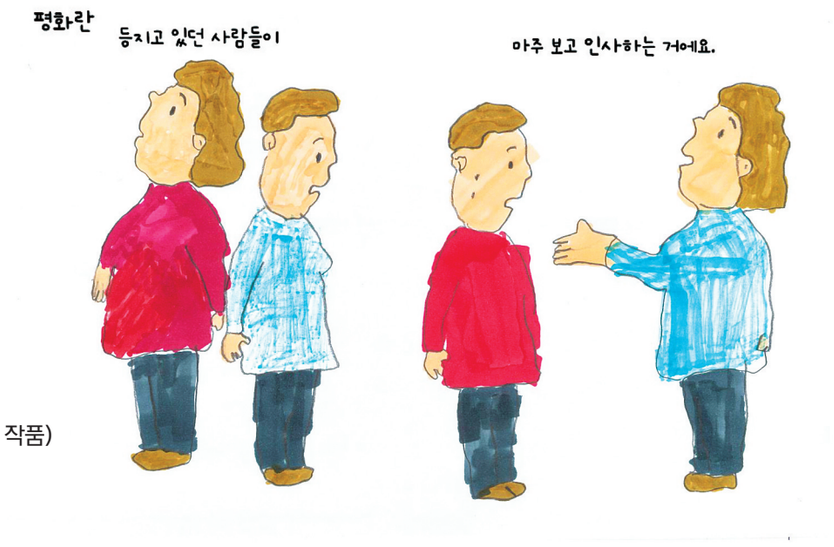


가치 그림책 작품
(선창초등학교 6학년 4반 작품)

“평화는 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요.”
“평화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평화는요 모두 화도, 짜증도 내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침에도 하늘이 좋고, 밤에도 하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5·18 가치는 ‘용기·평화·기억·자유’

광주실천교사, 5·18기념재단 ‘5·18가치그림책 만들기’ 계림초 등 전국 20학급 462명 참여 그림책 20종 295부, 영상 9편 제작

위 문장들은 광주 선창 초등학교 3학년 1반(지도 박미리 교사)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평화’에 대한 정의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거창하고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자칫 유치해보일 수 있다.

사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갈등, 혐오와 소외 같은 인권침해가 무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평화는 그렇듯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단순하다. 오늘의 기성세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평화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5·18의 가치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교원단체 ‘광주실천교사’와 함께 올해 4월부터 ‘5·18 가치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사실 전달 위주의 5·18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 학생들의 지적 관심과 정서적 감응을 고려해 진행됐다.

전국 초등학생들과 함께 5·18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5·18 가치를 그림과 글을 토대로 그림책을 제작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앞서 언급한 선창초 3학년 1반을 비롯해 그림책 만들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유튜브를 통해 목소리를 담았다. 성지초 3학년 1반(지도 정우정 교사)은 ‘용기란 뭘까?’, 구미봉곡초 달보드레반(지도 이동민 교사)는 ‘공동체란?’, 광주계림초 네이버반(지도 정일승 교사)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마다의 목소리를 담았다.

지난 2022년 개발돼 2회째 진행된 ‘5·18 가치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올해 20학급 대상 학생 462명이 참여해 그림책 20종 295부, 영상 9편을 제작했다. 학생들은 가치그림책 만들기에서 ‘용기’(5학급)를 5·18가치로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평화’가 3학급이었으며, 기억·자유·희망(각2학급)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 참여 학급 비율은 광주·전남(14학급), 서울·경기(5학급), 독일(1학급)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35학급 대상 학생 763명이 참여해 그림책 35종 290부, 영상 4편을 제작했으며 제작된 영상은 전일빌딩 1층 미디어월, 5·18기념공원 미디어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방문자 대상으로 상영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장준식·박선옥 교사는 “5·18 가치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역사책의 기록이 아닌 아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향후 제작된 ‘5·18 가치그림책’을 매개로 전국 초등학교 대상 5·18가치 수업을 진행하고 전국 오월서가에 ‘5·18 가치그림책’ 전시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향 2022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광주문예회관 재개관 첫 연주회에 초대합니다

광주시향, 30일 정기연주회…피아니스트 손민수 협연

개관 32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시민들 곁으로 돌아오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첫 연주회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한다. 재개관 첫 주인공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마련한 것.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30일(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372회 정기연주회 ‘Titan’(거인)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재개관을 기다려준 시민들을 위해 ‘시민할인’ 혜택이 제공돼 눈길을 끈다.

먼저 1부에서는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베토벤이 청년 시절에 작곡한 작품으로 형식 면에서는 고전주의 협주곡을 완성한 모차르트의 노선을 따르고 있으나 이전 협주곡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교를 과시했고 대규모 편성의 협주곡으로 도약했다.

손민수는 지난 2017년부 2021년까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대장정과 아울러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다. 지난 2022시즌에는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의 전국 투어를 마친 바 있다. 2015년부터 한국예종에서 후학 양성을 하고 있으며 오는 가을하기부터 미 보스톤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에서 교편을 잡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20대 청년이었던 말러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교향곡 1번 ‘Titan’(거인)이 연주된다. 말러는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운명에 대항하는 거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광주시향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6월 1일 예술의전당에서 ‘2023 교향악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예술감독 홍석원이 이끄는 광주시향은 2021년, 2022년 고향악축제에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으로 2년 역대급 호연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피아니스트손민수 ⓒJino Park

한편 광주시향 관계자는 “새롭게 변신한 공연장에 맞게 수준 높은 공연들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는 무엇에 저항할 수 있을까?’

강수지·이하영 ‘광장감각’ 전…18~27일 광주오버랩

‘5·18 이후’(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무엇에 저항할 수 있을까?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 점차 당시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번쯤 5·18 후속세대들은 앞서와 같은 질문, ‘우리는 무엇에 저항할 수 있을까?’를 자문했을 것 같다.

‘위장술 胃臟術’이라는 제목의 설치작품은 그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공동체와 생태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활동가와 협력해온 강수지·이하영의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광주오버랩에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광장감각’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광장감각’전은 2022~2023 ICC 프로그램 참여자인 독립기획자 이하영의 연구 결과로 전시와 참여프로그램이 짜여졌다.

강수지·이하영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야생조류유리창충돌 기록을 초점화한다. 비건-동물권 활동가인 희복과 함께 저항의 방식과 기념비에 대한 상상력의 확장을 시도했다. 특히 이들은 5·18기념공원 대동광장에 설치된 오월정신 기념물 ‘글라프파사드’에 새겨진 새들의 충돌흔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기억 사업 일환으로 기념비가 세워지는 과정을 추적하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대동세상’과 ‘오월정신’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전시 기간 음식철학/음식교육가 김진아와 함께 ‘콤부콤부 커뮤니티-공생의 스코비 코뮌’ 등 연결과 공생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9일~21일까지 3회 실시한다.

‘위장술’ 일부 이미지

이하영 기획자는 “이번 전시가 막연한 느낌으로 인식해 온, 광장에서 경험하는 연대와 연결의 감각을 어떻게 일상의 실천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월가족’이 겪은 오월의 기억을 듣다

ACC, 17~27일 특별운영

‘오월가족’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족의 가슴에 묻혀 있었다. 그날의 아픔과 상흔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가슴에 묻은 이야기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생생한 진실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그날의 진실을 전한다.

오월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올해도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은 오는 10월 7일까지 18회에 걸쳐 옛 전남도청 일대와 별관에서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를 진행한다.

특히 오월행사와 방문객이 집중되는 17일부터 27일까지는 특별운영 기간으로 정해 매일 시민을 맞을 계획이다.(이후 6월 3일, 7월 1일, 8월 5일, 9월 2일, 10월 7일)

이번 프로그램은 ‘오월가족 강연 프로그램’과 전문해설사와 옛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오월가족이 겪은 오월의 기억과 그 기억이 지배하는 현재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참가 희망자는 ACC누리집과 현장예매로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교류홍보과(062-601-4263)로 문의하면 된다.

ACC 이강현 전당장은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를 듣고 오월가족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오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아울러 민주와 인권, 평화의 의미를 승화한 다채로운 전시 및 공연행사가 열리는 ‘ACC오월문화주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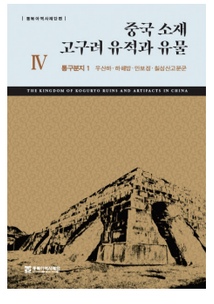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10권 완간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고구려 관련 유적과 유물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15년간의 작업을 거쳐 완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007년 시작한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말 10권의 자료집을 모두 펴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집은 고구려 역사의 흔적이 남은 유물과 유적 총 971건을 다룬다. 압록강 중상류, 국내성이 있었던 통구 분지, 랴오둥반도와 송화강·두만강 유역 등 각 지역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고구려 관련 고분과 성곽, 출토 유물 등을 정리했다.

고분군 246곳, 개별 고분 269기(基·무덤, 비석 등을 세는 단위), 성곽 301곳, 성곽의 개별 유구 31기, 기타 유적 40곳, 개별 유물 84건 등을 상세한 설명과 풍부한 시각 자료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서, 지도, 답사 자료 등을 연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책에 담았다.



특히 10만분의 1 수준으로 표시한 지형도나 구글 지형도에 유적 위치를 표시해 실제 현장을 가지 않고도 주변의 지리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연구 자료로써도 활용할 수 있다고 재단은 전했다.

/연합뉴스